

민간기금 조성 복지사각지대 제로화

전주시 33개 동협의회, '동네복지 후원계좌 만들기' 협약... 민간복지자원 발굴 지역 복지 해결

전주시는 9일 시청 회의실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전주시 33개동 동네기획단 위원장, 동장 이종성 회장을 비롯한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네복지 후원계좌 만들기'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시와 33개동 동네기획단,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민간복지자원의 발굴을 통해 지역의 복지문제를 지역 내에서 스스로 해결하고, 위기상황에 놓인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는데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동네를 중심으로 민간후원자 발굴 및 모금 조성에 힘쓰고, 이를 활용해 독거노인과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이웃 등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33개동 동네기획단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CMS계좌를 통한 정기기부활동 등으로 연간 연말에 집중돼 있던 기부분화를 상시 나눔 모금체계로 전환기로 했다.

기부 받은 후원금과 CMS후원금은 동네의 복지문제와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비로 사용될 예정이어서 마을과 주민 주도의 동네복지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대 '공감터길' 지역민에게 인기

지난 9일 전북대학교는 인도를 대학 캠퍼스로 끌어들이 조성한 공감터길이 지역민들에게 문화공간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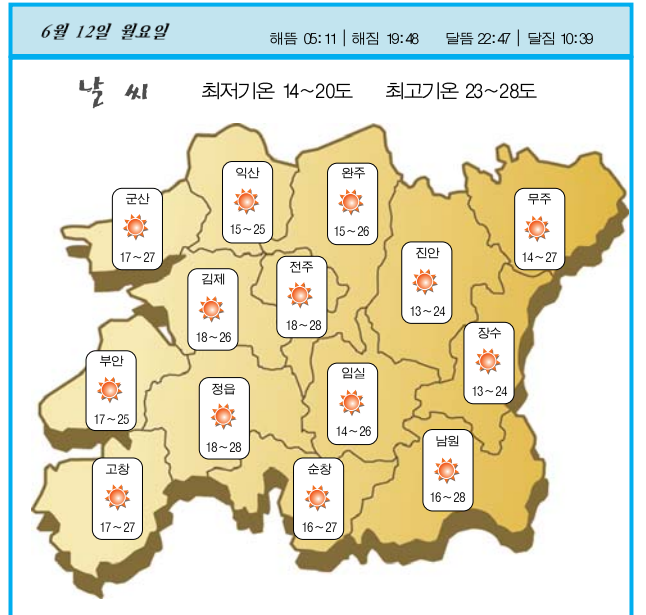
전주시 33개 동 협의체는 기부금품 모금 및 전달, 지원대상자 발굴 및 연계를 담당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기부금품을 관리하고 배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시는 동 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과 사업홍보에 힘쓰기로 했다.

이종성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은 "전주시 33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이 지역사회에서 동 단위 복지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나눔 문화 확산과 전주형 동네복지의 성공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전주시 동네복지 사업이 동네기획단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찾아가는 복지, 빈틈없는 복지를 실현하고 사회적 약자와 다함께 누리는 따뜻한 복지공동체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재용기자



도교육청, 전북교육아카데미 '대통령 글쓰기'

22일 교육청 2층 대강당

전북도교육청의 6월 전북교육아카데미는 강원국 대통령의 글쓰기 저자를 초빙해 '대통령 글쓰기'를 주제로 22일 오후 7시 교육청 2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아카데미는 강 전 연설비서관이 8년간 직접 보고 들은 대통령의 글쓰기 핵심 노하우를 전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강 씨는 2000년부터

2008년까지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 비서관을 지낸 바 있다.

강 씨는 이번 특강에서 두 명의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보고 듣고 배운 글쓰기 비법을 알려준다. 독자와 교감하라, 메모하라, 제목을 붙여라 등의 글쓰기 방법을 폭넓고 흥미진진한 에피소드와 함께 말한다.

전북도민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정해은 기자

전북대, QS세계대학평가 국내 종합 12위

거점국립대 중 2위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가 조선일보와 영국 글로벌 대학평가기관 QS가 발표한 '2017 세계대학 평가' 국내 종합대학 12위에 랭크됐다.

거점 국립대 가운데는 2위에 오르며 최근 수년간 국내 종합대학 10위권 초반 국립대 2위의 위상을 이뤘다.

이번 평가는 세계 438개 대학을 대상으로 학계평판(40%)과 기업계평판(10%), 교원당 학생비율(20%), 외국인 교원비율(5%), 외국인 학생비율(5%)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지난해 국내 종합대학 14위에서 한계단 순위가 오른 전북대는 학계평판이 국내 모든 대학 중 13위에 오르면서 순위 상승을 주도했다.

이는 전북대가 이남호 총장 취임 이후 대학발전의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는 브랜드 가치 제고를 통한 대학의

네임밸류가 높아지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교수당 논문 피인용 수'도 최근 5년 동안 가장 높은 국내 16위에 오르며 교수들의 연구 경쟁력도 매우 탄탄함을 보여주고 있다.

전북대는 QS 세계대학평가, 아시아 대학평가, 영국 타임스고등교육 평가 등 최근 수년간 이어진 글로벌 대학평가에서 꾸준히 거점 국립대 가운데 2위에 이름을 올리며 높은 위상을 과시하고 있다.

전북대는 수치로 환산되는 성과 위주의 발전보다는 '대학이 유일하게 갖고 있고 가장 잘 할 수 있으며 했을 때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고유 브랜드를 찾아 가치를 높여가는 것'을 중장기 대학발전 전략으로 삼고 있다.

전북대는 이남호 총장 취임 이후 △ 색깔 있는 모험인재 양성 △월드 클래스 학문 분야 육성 △가장 갖고 싶은

캠퍼스 톨레길 조성 △가장 한국적인 캠퍼스 구축 등을 4대 브랜드로 선정해 발전시키고 있다.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실력과 인성을 함께 키울 수 있는 '레지덴셜칼리지'와 최소 한 학기 이상은 다른 나라나 특정 지역에서 다양성을 경험하게 하는 '오프캠퍼스'와 같은 새로운 프로그램도 도입했고 대학이 자랑하는 '7대 세계적 연구소'를 육성해 세계를 이끌 연구 분야 육성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이남호 총장은 "우리 대학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가치를 높이기 위한 대학의 발전방향이 다양한 평가에도 반영되고 있는 것 같아 기쁘다"며 "브랜드를 통해 여러 면에서 네임밸류를 높인다면 우수한 학생과 교수가 우리대학을 찾고 우수 졸업생 배출을 통해 명문대학이라는 이미지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남원교육문화회관 우리 마을 작은 음악회

남원교육문화회관(관장 박정길)은 지난 8일 오후 6시부터 남원시 사랑의 광장 야외 무대에서 '2017년 우리 마을 작은 음악회'를 열어 학생들의 끼를 펼치고 주민들에게 소통과 화합의 기회를 제공했다.

'2017년 우리 마을 작은 음악회'는 학생특기적성교육과 평생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교육생들이 난타, 풍기타, 오키리나, 유아 발레, 노래합창, K-POP댄스 플롯 등의 다채로운 공연 무대를 선보였다.

또한 제2회 전국시낭송대회 일반인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한 남원출신 서윤경 님이 낭송을, 학생특기적성교육 지도강사의 성아 협주, 그리고 남원고 동아리 학생들의 락밴드 공연, 중앙초 관악대 '한울림 윈드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관악 공연 등 남원 지역의 다양한 팀들이 참여하는 신명나는 공연이 약 2시간에 걸쳐 펼쳐졌다.

/남원=유영철기자

초·중·고졸 검정고시 시행 계획 공고

전북도교육청은 올해 제2회 초졸, 중졸, 고졸 검정고시 시행 계획을 지난 9일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검정고시 종류에 따라서 초졸과 중졸·고졸로 나누어 원서 접수 장소가 다르므로 지원자는 공고 내용을 확인하고 접수하여야 한다.

원서 접수는 초졸의 경우 19~23일 5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북교육청 1층 행정자료실과 전주 및 원주를 제외한 시·군 지역교육지원청에서 현장접수를 실시한다.

중졸·고졸 검정고시는 19~23일 5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간 응시지는 전북교육청 1층 행정자료실에서만 현장접수하며 장애 응시자는 초졸과 동일하게 전북교육청 1

층 행정자료실 및 전주, 원주를 제외한 각 시·군 지역교육지원청에서도 원서 접수가 가능하다.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온라인 접수는 현장접수보다 1일 단축된 19~22일 4일간 온라인 접수 홈페이지(<http://tomedu.jbc.gakr>)에서 금융기관 개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접수할 수 있다.

구비서류는 검정고시용 최종학력(제적, 정원의관리, 졸업)증명서나 검정고시 과목합격증, 여권용 사진 2매(3.5x4.5cm) 응시자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시험장소 공고는 내달 21일, 시험일은 8월 9일이며 합격자 발표는 8월 28일 오전 10시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계획이다.

/정해은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장수!

Healing 여행!

장수는 심심계곡의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로 발길 닿는 곳곳이 관광휴양지이며, 고랑 고랑 먹거리마다 청정장수가 주는 선물이 가득합니다.

방화동자연휴양림

방화동계곡

승마체험장

외동자연휴양림 물별매장

NAVER 장수물 검색 장수군